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대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野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5-20 동복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숙원의 '용마가족등반대회' 열린다

6월11일 승학산 일원서

제 1~46회 기별대항
용마산악회 창립 확정
경남고서 시상식·뒤풀이



제1회 동창회장기 쟁탈 기별대항 용마산악대회가 6월11일 승학산 일대에서 열려 용마가족의 하나됨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표자회의를 열어 △'용마산악회' 창립 △대회운영계획안 등 주요의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남고 OB산악회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백두대간 종주 산행을 성공시켰던 '구덕산우회(회장 김대원·20회)'가 진행을 맡는다.

숙원의 '용마가족등반대회'가 동창회사상 처음으로 전 동기회(제 1~46회)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별대항행사로 펼쳐진다. 본부동창회는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오는 6월11일(일요일) 제1회 용마가족등반대회를 승학산 일원에서 개최, 동문가족 상호간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고 호연지기를 길러 동창회 발전의 활력소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창회장기 쟁탈 기별대항전인 이 행사는 대회 당일 오전 9시 30분 부산 사하구 허단동 동아대 승학캠퍼스에서 출정식을 갖고 일제히 산행에 돌입, 승학산~구덕산(안부에서 중식)~꽃동네~엄광산~구봉산~경남고에 이르는 7시간의 대장정을 감행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5시 경남고 체육관 앞에

동창회사상 첫 '4성장군' 김판규(16회) 1군사령관



김판규 동문(16회·사진)은 초대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재임중 4월25일 육군대장으로 진급, 1군 사령관으로 영진했다. 이로써 김동문은 동창회 사상 첫 '4성장군'이 됐다. 전술지식이 해박하고 입체고속 기동전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문은 지난해 창설된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1년 사이에 정예전투부대로 육성, 강병기반을 구축했다. 소탈하고 합리적인 김동문은 △부

'부조리' 등 4禁 생활화

대내 구타 △교육훈련 부실 △부조리 △안전불감증 근절에 역점을 둔 '4금(禁)'을 생활화해 안팎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김동문은 육사24기 졸업 이래 55사단장 육군대학총장 6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동문은 4월29일 1군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사령관 취임식에 이어 치러진 다사회에서 이백제 동기회장이 전달한 승진패를 받았다. 이날 부산 등에서 동기생 23명이 참석, 축하했다.



5월14일 부산 신평레포츠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5회 용마테니스대회 개막식.

무명 26회 처녀패권 "감격"

제26회동기회는 용마테니스대회에서 처녀우승, 감격과 영광을 한껏 누렸다. 제26회는 5월14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레포츠 테니스장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25회 기별대항 용마테니스대회 결승전에서 막강한 제18-19회 연합팀을 따돌리고 출전사상 처음으로 '패권스매싱'에 성공, '천하통일'을 달성했다. 이날 준우승은 연합팀(18-19회)·3위는 제28회 4위는 제13회가 차지했다. 또 최우수선수상은 최병무(26회), 우수선수상(이상민·18회), 감투상 최종철(28회), 미기상 이태량(13회), 모범상 28회, 단체상 32

용마테니스대회 성황
준우승 연합 18-19회
MVP 최병무
단체상 제32회 수상
행운대상 장원용

회 등이 각각 수상했다. 용마테니스회(회장 정형근·19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12개팀(3복식) 선수·임원, 응원 동문·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까지 열전을 벌였다. 제26회는 이날 연합팀(18-19회)

이 3연패를 노리고 있던 '무적함대' 제25회를 결선 토너먼트전에서 격침 시킴에 따라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제26회 테니스회는 90년 결성한 이래 월2회 정기모임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용구장까지 갖고 있는 모범적인 팀이다. 김상현회장과 신재호총무의 리더로 25명이 결속돼 있다. 이날 뒤풀이행사는 인근 '육고기뷔페'에서 치렀고 임우근(한성기업 대표·19회)·채경석(오복간장 대표·20회)·조광제동문(대선약국 대표·28회)등 여러 동문들이 행운상품을 협찬했으며 장원용동문(26회)이 대상을 받았다.

부산은 지금 요트의 계절



여름이 열린 부산 수영만 앞바다는 젊음과 낭만을 가득 실은 요트들의 역주로 수놓아지고 있다. 사진은 5월28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

시평



김성규 제11회 재경동창회 회장

다음 글은 김성규 재경동창회 회장이 '재경동창회'의 국배판 변경에 따라 '2000. 5' 제25호를 발행하면서 역설한 '새 천년의 초입에 서서/동창회의 새로운 토양과 비전'을 제목의 전문이다.

2000년 들어 오랜 전통 끝에 국배판 형식의 새로운 용마회보가 탄생하여 동창회에서 직접 동문들에게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보가 늦은 이유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변화의 산고 때문이라고 모든 동문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지평을 맞는다고 흥분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 천년의 초입에 서서 유행병처럼

동창회를 '보통동문'들의 광장으로

럼 전국을 휩쓸고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사이버, 온라인, 정보통신, 인터넷, 벤치기업, 나스닥, 코스닥 등.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변화의 물결을 잘 타면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갑자기 미국의 나스닥시장의 주가가 추락하자 코스닥도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질서와 패러다임이 혼돈 속에서 급류를 타며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돌려 우리 동창회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혼돈의 와중에도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살리며 비전을 가지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동창회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창회의 재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 동창회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동문에 의지하기보다 전 동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 2만원의 일반회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대신 동창회에서 회보를 동문들에게 직

접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이 튼튼해지면 각종 행사나 모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동창회 주최 행사에는 동문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고 회장단 회비도 내리고 이사회비도 내려 이사회를 소수 정예화 시키는 등 건실한 재정은 이

연락을 하도록 하고 서로 의견교류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커뮤니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각 기별 모임보다는 선후배가 함께 모이는 지역별, 직능별, 동호인별 모임을 활성화시켜 자랑스러운 후배와 존경받는 선배가 나올 수 있는 훌륭한 동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재경동창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은 이런 후배들을 격려해주어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빛나는 전통과 모교의 정신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제 결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대다수의 평범한 보통 동문이 참여하여 동창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토양과 비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창회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창회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여 회의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교육 및 각종 모임 등에 동창회 사무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동문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건실한 재정 운용에 박차
디지털 시스템 구축 정보교류
지역·직능·동호인별 활성화
대다수가 참여하는 풍토 조성
변화의 시대 과감히 도전을

모든 구상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동창회를 추구하여 모든 동문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동창회의 최신 소식을 접하거나 동창회에

한규설(1회)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한규설동문(1회·사진)은 4월24일 동아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평생동안 수산업 발전에 열정을 바친 한 동문은 특히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저서와 수많은 관련 논문 등을 발표했다.

동아대는 한동문의 이같은 수산경제 도약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학술적으로 인정, 이번에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동문은 모교인 부산수산대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두만 신입회장 선임 제7회 총회 40여명 참석



제7회동기회는 4월18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석화그릴'에서 새 천년 첫 정기총회를 열고 박두만동문(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회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진현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이어 임원을 개설했다.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동기회는 앞으로 '동문참석률 높이기 운동'을 펴고 본부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양웅석(11회) 부산대병원장 발탁

양웅석동문(11회·부산대 의대 교수·사진)은 5월 20일 부산대병원 제20대 병원장(특수법인 3대)에 취임했다.

양동문은 이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를 맡고 있으며 특히 내시경의 권위이다.

부산대학병원이 93년 특수법인으로 바뀐 이래 3대에 걸쳐 병원장이 모두 용마(초대 14회 유충

일·2대 17회 전경명·3대 11회 양웅석)이다.

은후하고 말수가 적은 양동문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후 의대 교수 및 병원 내과과장, 부산시립병원 및 침례병원 내과과장, 95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양동문은 "대학병원이 시민들에게 '열린 병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용마가족들의 건강상담에서부터 치료에 이르



기까지 '주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문은 '당신의 위장은 어떻습니까?' 등 의학저서 다수를 펴냈고 소화기내시경학과와 관련한 연구논문만도 수십편이나 발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7회 서·사하회 창립 ... 초대회장 양태종



제27회동기회의 서·사하회가 5월12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미집'에서 역대 동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김경진 동기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지역회 초대회장 양태종(사진), 총무에 윤지한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서·사하회는 앞으로 △계절별로 정례회를 개최하고 △재미있는 이벤트 개발 등으로 화합과 결속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제33회 임원 개선 김법영 회장 선임



제33회동기회는 3월28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법영동문(동의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성국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20주년 모교방문행사

와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김법영회장은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산악회를 발족하고 기별야구대

회에서 상위입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회 장 : 김법영
△수석부회장 : 송종현
△부회장 : 배종현 이광호 이순환
△감 사 : 박영배 신영재
△총 무 : 김재선.

제15회동기회 임원 명단

회 장 정창환

동기회관 운영 위원장 손부흥

부회장

권승부 김광홍 김영곤 김정환
김창구 박찬호 신홍규 이승남
이종희 장종호 조규중 최 병홍상석

동기회관 운영 위원

권승부 김경일 김승일 박찬호
신철호 신홍규 장종호 최병우

한창숙 조일랑(회관실장)

자문위원

강재모 구형우 김삼용 김중광
김학현 손부흥 손재형 신홍규
안충용 이은수 이종명 전동석
정기문 정수방 정준수 정창환
조영일 최 욱 한해수

감 사

김기평 윤상준

이 사

강민조 강부남 강정남 강창일
고태연 김길홍 김명배 김상정

김상차 김양일 김양정 김염훈
김영환 김완식 김옥규 김정길
김종태 김준근 김 천 김준상
김황영 박소남 박우기 박재준
박종석 박준철 배 박 백승진
설수민 손방현 안경숙 오세창
유경수 유병용 유승덕 유지영
이강남 이기준 이기철 이동근
이상도 이선공 이순구 이영정
이인규 이종수 이 준 이창일
이철성 임병철 임영길 임종구
장수용 장윤석 정강홍 정영선
정옥중 정효명 주상학 주윤탁
최광웅 최무길 최병원 최원수
허영수 황춘식 허두영 허진석

총 무

강무상 김판열
조일랑(회관실장 겸직)

본부동창회 부회장

오봉석 한해수

본부동창회 이사

김판열 명호근 이재원
정기문 정창환

명철공 美LA회장 장학금 100여만원 쾌척

미국 LA지역동창회 명철공회장(17회·의사)이 최근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000달러(한화 109만 9361원)를 본부동창회에 기탁했다. LA에서 내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는 명회장은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인에게도 신임이 두텁다. 특히 수년간 동창회를 이끌어오면서 용마정신을 고취시키고 동문·가족들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본부동창회에 기탁



명회장은 친구인 전영부동문(17회·보양상사 대표)편으로 이 장학금을 보내면서 "적은 돈이지만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장학금을 계속 송금할 계획이며 역대 동문들의 동참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동창회는 명회장이 보낸 장학금을 장학회 계좌에 넣어 관리키로 했다.



북한산에 "후라 경고!" 메아리 제23회 경부합동 산행

제23회동기회 경부합동산행대회(사진)가 4월16일 서울 근교 북한산에서 서울23산우회(회장 이재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울동기회가(회장 구자섭) 지난해 부산동기회에서 주관한 경부합동산행대회에 대한 감사 표시와 부산의 '둘셋산우회' 창립을 격려하는 뜻에서 실시됐다. 부산의 산꾼 18명을 포함, 모두 45명이 참석한 이날 산행은 동기회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서울에서는 부산의 친구들에게 유석산동문이 협찬한 고급시계와 등산용 손전등을 선물했다.

날 산행 후 열린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박수갑(사진), 총무에 김상영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산우회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정했다.



둘셋산우회 창립등반 초대회장 박수갑 선임
한편 동기회 '둘셋산우회' 결성기념 등반대회가 1월23일 범어사~산성북문~남문코스에서 실시됐다. 이

삼일산우회 창립 새 회장에 박종규

제31회동기회 삼일산우회는 4월30일 금정산에서 9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산행을 갖고 박종규동문(변호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오전 10시 범어사역에 모인 일행은 적당히 오는 봄비 속에 산행을 즐기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충전했다. 오르막에선 서로를 격려하고 확장시절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재경8회 클럽별 활동

연차우승 조운제·양춘제세 골프대회 순금 공 "행운"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5월4일 안성C.C에서 24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89회 월례회 겸 1999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우승자 최종결승전을 개최했다. 남자부 우승은 조운제·준우승 김세근·3등 정진수·행운상 강성태동문이, 여자부 우승은 양춘제·준우승 권정옥·행운상 김정화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우승자에게는 순금 1냥짜리 골프공이 상품으로 전달됐다.

팔선회 5월 정기모임 자스민바독센터서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5월9일 오후 1시30분 자스민바독센터에서 정기모임을 열었다. 윤태영 이종수 이유환 신현주 추정화 이종근 강성태 김진석 이창근동문(이상 도축순)이 참석.

어딜 가나 '요란법석'이 장기

제15회동기회 넉넉한 직능별 행사 여기저기서



일요골프회는 4월23일 오전 10시30분 통도사 GC에서 동문 13명과 부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열고 91년 졸업30주년 축제 당시 회장을 역임한 신흥규동문(사진)을 신입회장으로, 강재모동문을 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손재형회장이 주재한 이날 경기에서 우승 김상정·준우승 손부흥·3위 신흥규·니어리스트 강재모·롱기스트 박종석·행운상 정창환·메달리스트 김정환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특히 김정환동문은 부인들과의 라운드에서 공정한 심판을 지원하며 단장일치로 메달리스트를 수상하게 됐다.

일요골프 우승 김상정 사하회 폭탄주 "부리보" 바둑 패권 서팔근·조일량

일행은 행사를 마치고 온천장 '기장횃집'에서 강정남동문 차녀 결혼식에 다녀온 팀과 합류하여 뒤풀이를 가졌다.

사하회는 4월25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백숲물갈비집'에서 장중호회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열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 정창환 동기회장과 강부상 김판열총무가 참석, 발전을 기원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일요기우회는 4월29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기원'에서 회장에 정팔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김정환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20여명의 동문이 참석, A, B조 토너먼트로 대국을 펼쳤다. A조 우승 서팔근·2등 정기문·3등 심재일, B조 우승 조일량·2등 김지영·3등 김판열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제17회동기회 경부합동산행이 가라산 신령 후 봉우리에서 열렸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산행 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다.

거제 가라산 등반 광어회 포식 제17회 부부동반 65명 참가

제17회동기회(회장 정량부)는 5월 21일 경남 통영에 사는 임병화동문

의 초청으로 거제도 가라산에(538m)서 부부동반 등산대회를 열었다. 일행 65명은 산행 후 오후 6시부터 동화수산 양축장 임시아외식당에서 중국술과 광어회로 단합회를 가졌다.

동기회 홈페이지 운영키로

제27회 임시총회... 강주훈 등 소식지 제작비 협찬

제27회동기회는 4월20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크리스탈뷔페'에서 새 집행부 구성 후 첫 임시총회를 열었다. 문두찬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임원개선 및 사업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주훈동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95년 귀국한 이래 동기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 강주훈 김원대 허 한 동문이 소식지

발간을 위해 협찬금을 전달했다. 이날 동기회 감사에 김달호 최경룡 동문을 선임했고, 본부동창회 이사에 문희장을 비롯해 박치호 이철 장인철 차동민동문을 추천했다. 곧 개설예정인 동기회홈페이지와 관련해 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획 제작을 맡은 최경룡동문에게 연락하면 된다(011-801-5067. 051-801-2400. E-mail : cky0904@dava.kepco.co.kr).

제25회동기회 임원 명단

회 장 曹兪道	고 문 朴鍾雄 林武弘	趙鍾珍 金圭珍 康爽哲	梁承旭 李大羽 李明哲 李相和 李正仲 林相澤 全圭煥 鄭樹城 太明山 黃浩善 許澤	金大羽 金德佑 金東幸 金銅鎮 金秀國 金鍾滿 金昌浩 盧台鎬 朴德培 朴宰宰 朴元珪 朴進相 裴東明 裴錫千 白承湖 徐保民	成吳出 成白熙 尹鐘烈 李相捧 李聖浩 李龍根 李棕徹 李漢植 李海龍 林昌雲 趙京一 全尙泰 全容台 全永勳 丁東雲 鄭樹城	鄭信培 鄭鍾洙 崔次煥 韓榮根 韓俊錫 成健柱 許萬澤 許實權	재경동기회 회장 金在鴻 총무 河萬辰	골프회 회장 崔炳壽 총무 金鍾賢
수석부회장 諸榮成	文在寅 朴鍾贊 宋永根 辛聖基 吳相憲 李水榮	부회장 金吉洙 金大憲 金鈴 金鍾賢 金鐘鎬 金鐘佑 金昌郁 盧榮燦 文光燮 孫基千 楊孟準	이 사 姜龍珠 郭光植 權太勇	감 사 金相守	총 무 玉東薰(홍보) 余聖祚(재무) 朴弘基(섭외)	마창지역동기회 회장 韓俊錫 총무 尹宗有	아구회 회장 朴宏庸	
본부 총동창회부회장 徐秉洙	鄭允哲 崔東河 崔炳壽 崔仁德 韓憲教 徐秉洙 金鍾喆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金東鈴 총무 孫秀一	기우회 회장 李相和	산우회 회장 文在寅 총무 金相守 등반대장 李相英	테니스회 회장 李明哲			

마산·창원 가족동반 체육대회 홀수팀 3년연속 우승

마산·창원지역동창회 2000년 가족동반 체육대회가 5월14일(일요일) 경남 창원시내 경남도민사격장에서 열려 홀수기가 3년연속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수창지역회장(17회·남광석유 대표·창원상의 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문가족 200여명의 홀·짝수기팀으로 나눠 △단체줄넘기 △순수레 △파도타기 △축구(부인이 골키퍼) 등 8개 종목 경기와 노래 및 장기자랑 등으로 펼쳐졌다.

팀별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홀수기는 회색 티셔츠 유니폼을, 짝수기는 검은색 티셔츠 유니폼을 각각 입고 선전했다.

홀수기팀은 감독 노일용(13회·경

부전산시스템 대표)·주장 김현태(21회·한겨레신문 취재부장)·주무 홍정표(31회·대우국민차 KD운영팀장), 짝수기팀은 감독 김 관(14회·한국델몬트 전무)·주장 강상대(22회·동원정밀 대표)·주무 이종래동문(32회·네덜란드생보 부산 부지점장)이 맡아 소속팀을 일사분란하게 이끌었다.

한편 본부동창회(회장 조대제·7회)와 지역동문들이 격려금을, 각 동기회별의 상품협찬으로 대회가 풍성했다.

이날 입상한 단체·개인은 다음과 같다.

- ▲ 단체상
 - ▷ 종합우승: 홀수기팀
 - ▷ 최다참가상: 제33회



5월14일 경남도민사격장에서 열린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체육대회 개막식(위)과 동문가족들의 줄넘기 경기 장면.

- ▲ 개인상
 - ▷ 최우수상: 정상국(29회)
 - ▷ 감투상: 백수현동문(33회) 부인(축구 골키퍼)
 - ▷ 잉꼬상: 김재혁동문(40회·동마산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부부
 - ▷ 비둘기상: 이성기동문(23회·새한개발토건 대표) 부부

경부합동 대둔산 등반 경팔산우회 20여명

제8회동기회 경팔산우회는 5월13일 충남 대둔산에서 부산·서울 동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대회를 가졌다.

김정근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대둔산 아랫목에서의 경부동문 상면에 이어 정상에 차고 올랐고, 하산길에 계곡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부산의 동문들은 커가길에 경주에서 만찬을 겸한 회식을 하면서 산행강평을 했다. 이날 김회장이 금일봉을 회사했다.

한편 산우회는 4월22일 배내골 알프스산장에서 부부동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놀이를 했다. 박동렬직전회장이 금일봉을 협찬했다.

제12회 동기회 첫 이사회

12회동기회(회장 이용언)는 3월23일 오후 6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동경초밥에서 새 천년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는 16대 총선에 출마한 여섯 동문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자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날 부산지역에 출마한 김광일 문정수 박찬중 등 세 동문이 참석,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서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며 건배했다.

17년 전통의 올해 '수학여행' 수안보온천~월악산~하회마을서

제16회, 김관규동문 1군사령관 취임 축하 참석



제16회동기회 수학여행단이 4월29일 강원 원주 1군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김관규동문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후 다과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산·낚시로 '가는 세월' 관조

제18회 부부동반 철마산에 낚시대회 우승 홍창우

제18회동기회(회장 김충철) 제9차 낚시대회가 4월15~16일 이틀간 경북 경주 근교 안강 오룡지에서 열려 홍창우동문이 우승을 누렸다.

김성수낚시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동문들이 출전, 우정을 나눴다. 일행은 '산머루식당'을 대회본부로 잡아 숙식을 해결했다.

한편 동기회는 5월28일 경남 양산군 철마면 근교 철마산에서 부부동반 산행대회를 실시한 후 하산해서 김원태동문의 농장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천성산 공룡능선 종주 용마이철산우회 115차 산행

제27회동기회 용마이철산우회는 5월14일 제115차 산행으로 10개의 산봉우리가 공룡의 등지느러미처럼 날카롭게 솟아 있다고 하는 천성산(812mm) 공룡능선을 종주했다.

장기남 산행대장의 리더로 단행된 이번 산행은 내원사 매표소 옆으로 들머리를 잡아 성불암 옆 개울을 거슬러

제1봉에 도전했고, 죽을 고생 끝에 제10봉까지 오르는데 성공했다.

장대장을 비롯, 11명(해운대 6·사하 4·북구 1명)의 동문이 절벽에 가까운 제1, 2봉을 1시간에 걸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초심자 김현수동문의 "나를 따라라!"는 명령 덕택.

일행은 집복제에서 점심을 나온 후 2시간에 걸쳐 '환상의 산책코스'로 알려진 정족산과 공룡능선 사이의 계곡을 타고 하산했다.

17년 전통을 자랑하는 제16회동기회 '수학여행'이 4월28~29일 이틀간 수안보온천~원주~월악산~문경새재~안동 하회마을 등에서 제17차 행사로 펼쳐졌다.

이백계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서 부산 서울 등 동문 23명은 수안보온천에서 1박했고 뒷날인 29일 원주 1군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김관규동문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 축하했다.

이회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있는 다과회에서 동기생을 대표해 김동문에게 '4성장군 진급패'를 전달했다. 일행은 커가길에 안동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대미를 장식했다.



제27회동기회 제1회 동기회장에 바둑대회.

勝負 놓고 '한랭전선' 퍼져도 "그래도 우정은 뜨거웠다"

제27회 첫 회장배 바둑대회·우승 천우태·김석운·염정선

제27회동기회의 용마이철산우회 주최 제1회 동기회장배 바둑대회가 5월20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국기원 부산수영지부기원(원장 백승이 동문)에서 열렸다.

문두찬동기회장과 김태우기회회장(아마3단) 등 24명이 참가한 이날 대국에서 갑조(1~2급)는 우승 천우태(아마5단)·준우승 백승이·3위 윤지

한 황호경, 을조(3~6급)는 우승 김석운·준우승 장창조·3위 김원대 손영규, 병조(7급이하)는 우승 염정선·준우승 김현수·3위 강봉호 정광모 동문이 차지했다.

특히 울산에서 온 윤종철동문에게 우정상이 수여됐는데, 병조 공동3위인 강봉호동문이 부상을 운동문에게 선물하는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참석 동문들은 대회가 끝난 후 대국장에서 심상한 생선회로 뒤풀이를 열어 반상의 열기를 식혔다.

우승자인 천우태 김석운 염정선동문이 각각 5만원·10만원·16만원을, 김태우기회회장이 대회경비·부상비·회식비 등을, 문두찬동기회장이 2차뒤풀이 경비를 협찬했다.

바로잡음 회보 제316호(2000. 4. 17) 2면 '김경희 제경고문(9회) 만남의 축제 회의 주제' 제목의 기사 중 김고문의 직책 '용마코포레이션 대표'는 '용마공영 대표'로 바로 잡습니다.

大韓風水地理研究會
風水地理師

모지·주택·아파트
사무실·공장·성명·상호

감정전문

- 풍수지리 무료 상담
- 명당자리 알선
- 신장·이장모터 팔분 또는 살분

회장 文 峻 翬
(6회·옛이름 형방)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881-40번지
TEL:051-755-5100
H. P:016-529-5001

당회소식

연락을 주시면 일주일분 신제품을 무료로 복용할 기회를 드립니다!!

당뇨 전문 신문 무료 배부!!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체계적 당뇨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수록된 「건강 포커스 신문」을 매월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상담) 수신자부담 : ☎ 080-086-4989
☎ (051)469-8484

<건강포커스신문사 부설 신통한 사업부>

대표 임영섭 (18회)

핸드폰 011-849-9101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단지내 (14호)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 (37회)
과장 고영민 (40회)
과장 최봉재 (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 051)294-0055
FAX : 051)294-0056

광고협찬 안내

어려운 시절 힘들게
견뎌나가고 있는
동문기업을 도움시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전화(051)245-7551~2

금오산서 표지석 제막·산신제

제22회 둘둘산우회 40여명 산행 성황

제22회 둘둘산우회는 4월9일 경남 삼량진 금오산(760.5m)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지석 제막식 및 산신제를 올리고 기념산행을 했다.

최일룡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표지석 제막식 및 산신제는 오후 12시 30분 일행의 정상 도착에 이어 올려졌다.

이 표지석은 3월20일 설치했던 것

으로 앞쪽에는 '금오산 760.5m, 뒤쪽에는 '경남중고 제22회동기회 둘둘산우회'가 음각되어 있다.

남백우산행대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은 원동과 안태마을을 지나 약수암 주지스님과 함께 정상에 오르는 코스였다.

일행은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김해지역 정기총회

김해지역동창회는 4월27일 오후 7시 경남 김해시 대성동 '금강산일만이천봉'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최태환회장(13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박석만동문(4회)을 비롯, 41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에 거주 중인 김해 출신 손병태동문(4회)이 자리를 함께 해 기쁨이 두배가 됐다.

이날 동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문들이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결의했다.



김해지역동창회는 4월27일 김해시 대성동 '금강산일만이천봉'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제22회 둘둘산우회 회원들이 4월9일 금오산 정상에 올라 표지석 제막식 및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약수암 주지스님(오른쪽 두번째)이 예불을 하고 있다.

새 회장 김종호 선임 제9회 집행부 구성



제9회동기회는 4월28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뷔페월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종호동문(사진)을 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종호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 △회장=김종호
- △부회장=배중태 신용익 임근문 한동대 박준경
- △감사=임종조 신석현
- △총무=최성욱.

제26회 신악회 등 클럽별 행사 "왕성"

▷26약(회장 김태년)=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산행. 4월16일 장녕 비슬산 산행.

▷26골(회장 최윤립)=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기모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로 일정이 미뤄져

20일 부산CC에서 라운딩을 즐겼다. 4조 16명의 동문 참가.

▷26기(회장 장종연)=매월 둘째주 토요일 정기바둑대회. 4월 모임은 22일로 연기되어 오후 2시 부산 서면 태양기원에서 열렸다.

▷26테(회장 김상현)=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대성산업구장에서 정기테니스대회.

조광도 회장 선임 제25회 임원 개선



제25회동기회는 5월9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빌딩내 '뷔페월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광도동문(외환은행 주례지점장·사진)을 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강석철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에는 60여명의 동문이 참석, 전년도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임원 개선에서 수석부회장은 제영성(제영성내과의원장)을, 총무는 옥동훈(홍보담당), 여성조(재무담당), 박홍기동문(설외담당) 등 3인을 선임했다.

풍수지리설에서는 땅의 기(氣)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땅의 기는 땅 속 핵심부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표의 큰 산에서 생성되어 산맥과 강(水)를 타고 흘러온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기(地氣)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태백산맥을 주축으로 광주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으로 뻗어 내려가 해남의 땅끝마을까지 이어진다.

해남의 두륜산은 남쪽에서 마지막 우뚝 솟은 산이다. 백두산의 '두'자와 중국 곤륜산의 '륜'자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곤륜산과 백두산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마지막 산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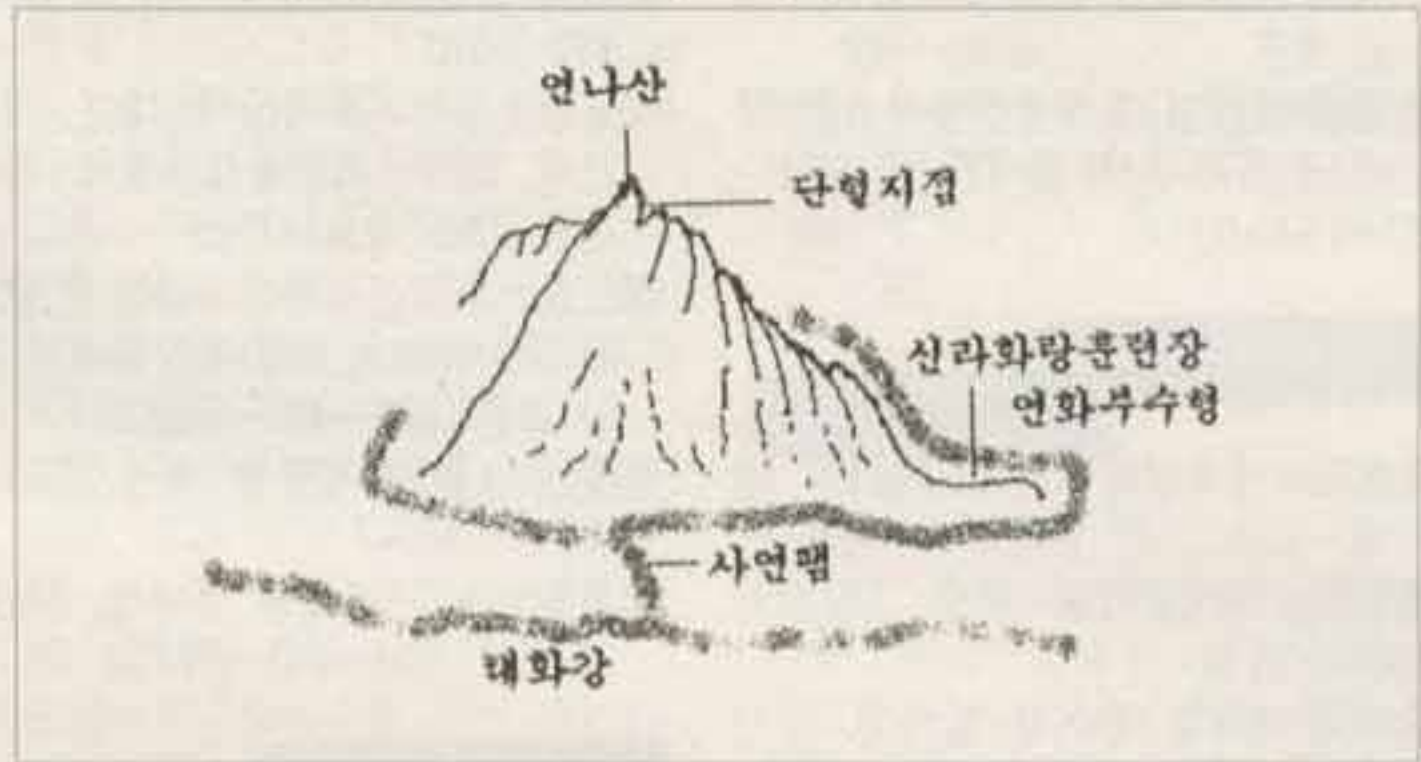
상상의 풍수 논리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나

재미있는 풍수지리

日人の 우리나라 風水 침략(上)

文 峻 瑚 (제6회·풍수지리사)

신라 도선국사는 일본의 산맥은 중국 대륙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열도로 이어진다고 봤다. 일본의 정기는 우리나라를 통해 나간다고 여겨 일본으로 흐르는 정기의 맥을



이렇게 뻗어나간 지맥은 제주도도 만들고 다시 대마도를 지나 일본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풍수침략의 심리전을 벌이게 된 논리적 시발점이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인제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 땅에 정기를 끊기 위해 우리의 명산과 명당 자리에 쇠말뚝을 박았고, 혈을 자르는 등 풍수살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명산대혈에 쇠말뚝을 박는 등 공격적인 풍수침략을 썼다.

누르면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실상사 절터에 일본으로 통하는 지맥으로 보이는 곳에 혈을 눌렀다.

보통 불상을 호화롭게 장식한 좌대 위에 모셔져 있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곳 실상사 약사전에 모셔져 있는 철불은 실내에 있으면서도 앉아 있는 바닥은 맨땅에 있다.

이는 도선국사가 삼천근의 무쇠로 부처를 만들어 일본으로 흐르는 지맥을 무거운 철제 불상이 눌러

앉아 일본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한다.

현재 불상 주변을 좌대 모양의 목재로 가리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좌대 위에 모셔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땅에 앉아 있다.

그리고 전설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망하면 실상사가 흥하고, 실상사가 망하면 일본이 흥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풍수적 침략이 전설이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1995년 7월20일 내무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광복운동의 일환으로 일제 쇠말뚝 제거 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그리고 1985년 3월25일 오르내림산악회가 주관해 북한산 백운대 정수리에 박힌 22개 철주를 뽑아낸 것은 일본이 풍수적 주술이 있었음을 입증한 사례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마산의 무학산 정상과 속리산 문장대에서도 뜻있는 선악회 회원들이 철주를 뽑아냈다.

일제가 36년간 통치하면서 의외로 풍수지리설에 많은 신경을 썼다.

여수행 철로를 놓을 때도 공사가 쉬운 평지를 버리고 산맥인 용의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산허리를 끊어 놓기도 했다. 경주에서도 철로를 가설하면서 명혈을 자르는 등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혈을 끊지 않은 곳이 없다.

울산의 두동면 연나산 정상 바로 아래에 해방 몇해 전에 일본이 단혈한 곳이 있다.

연나산은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산으로 산 아래 신라 화랑의 훈련장이 있으며 천전리 각석의 유적이 있어 더욱 유명하다.

연나산을 중심으로 동북방 4km와 남방 4km, 연나산 아래에 위치한 연화의 명혈을 끊기 위해 연나산 꼭대기에 혈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호 계속)

(주) 지상 JEE-SANG CO.LTD

대표이사 최 정 호
전무이사 최 승 호(3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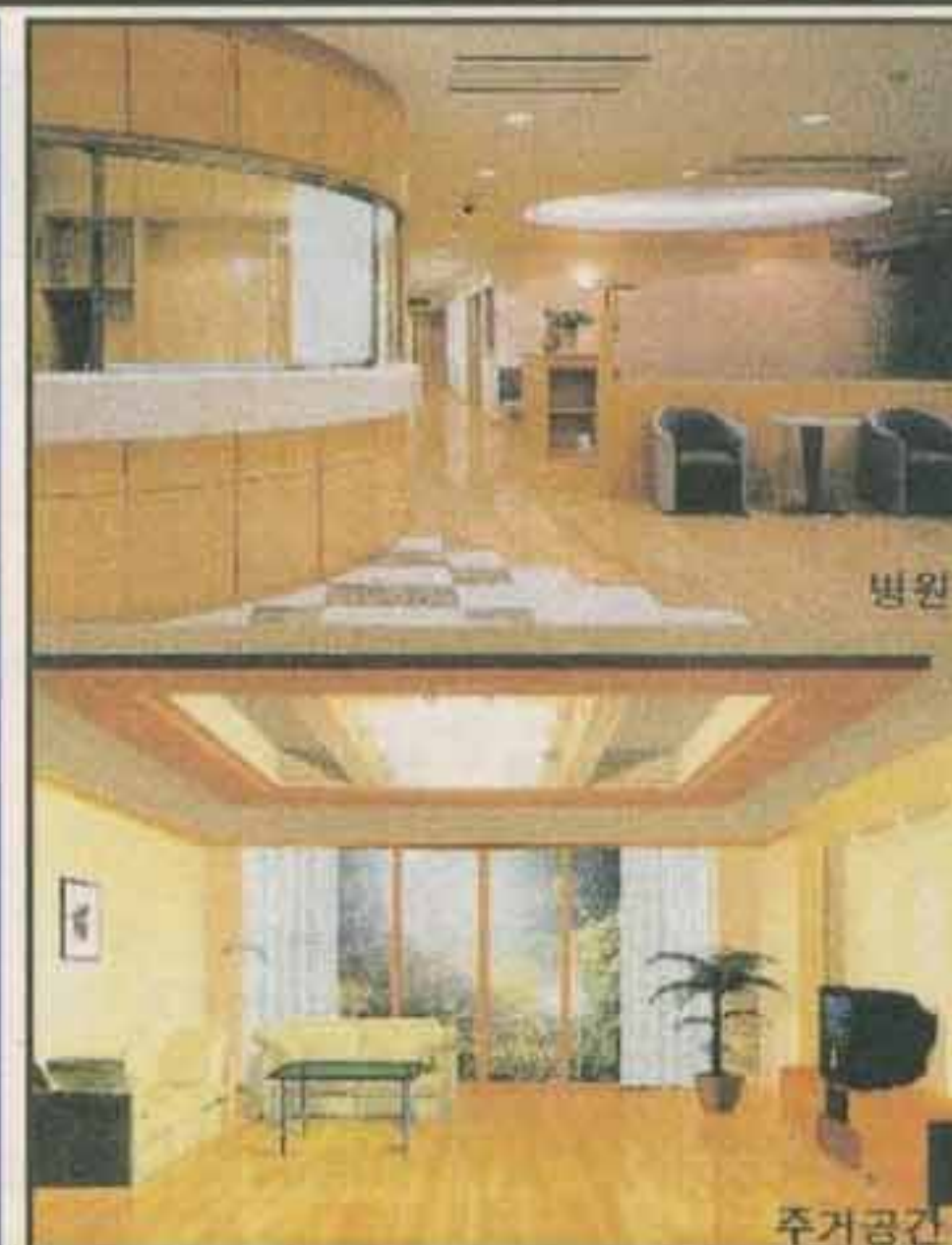
경남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초동농공단지 3-8 부산연락처 : 변호사 허중범법률사무소

TEL : (0527)391-6735~7
FAX : (0527)391-2644

TEL : (051)248-4097~8
FAX : (051)254-1260
H.P : 011-558-2910

TEFLON은 내열성, 내저온성, 내약품성, 전기전열성, 고주파국성이 우수하고, 비점착성과 저마찰 특성을 겸비하고 있는 수지입니다. 이같은 특성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제조업체의 금형기와 각종 기계장비는 물론 그 부품 및 공산품 부품의 표면에 코팅을 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주)지상은 첨단설비와 고도의 기술력으로 반도체장비 및 각종 산업기계 등에 TEFLON COATING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흥익·조형 Interior Design

- 문화공간 ● 전시공간
- 상업공간 ● 특수공간

병원전문 인테리어

- 병원 약국 상가 업소 학원
- 사무실 전시장 주택 APT
- 도면 및 견적 무료상담
- 동문 선·후배님들의 상담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韓 東 勳(36회·총무)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84-1
대)751-7400 753-6427
FAX : 751-7415
H.P : 011-865-4274

어디서 무엇을

제 7 회

金榮斗=5월14일 상공회의소에서 차남 결혼
 柳昌植=(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 동보3차A 101동1201호. 0331-263-0627

제 8 회

趙晨來=(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3차A 304동2202호. 051-731-6042
 李炳燁=4월29일 파라곤호텔에서 3남 승훈군 결혼
 鄭金出=고신인문사 사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 총회회관. 02-3476-0153. 011-596-1102
 申昊均=5월6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장남 현민군 결혼
 金東淳=5월5일 한국통신 대전연수원에서 차녀 현지양 결혼. (자택) 대전 동구 용전동 신동아A 14동 706호. 042-627-4300
 정현수=4월15일 명동성당에서 장녀 수진양 결혼
 廉炳泳=4월2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장남 윤철군 결혼
 郭春守=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안마을 128-7 301호. 0342-719-3558. 011-812-0251

제 9 회

張榮鍾=(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2동 AIDA 25동101호
 崔在鳩=(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298 건영2차A 106동904호. 051-703-4157
 姜大奉=2월4일 동아대병원에서 별세
 金馨鐸=2월26일 장남 결혼
 朴漢福=3월27일 동기회사무실에 급일봉(20만원) 전달
 安圭鉉=3월28일 동의대 병원에 입원
 金正明=3월30일 서울동문 동기사무실 방문, 동문 초대하여 중식
 韓得秋=3월31일 서울동문 동기사무실 방문 급일봉(20만원) 전달
 劉今烈=4월1일 장남 결혼
 鄭錄=4월5일 장남 결혼
 權寧大=4월7일 서울동문 동기사무실 방문 급일봉 전달
 張炳局=4월17일 동기회사무실 전원 초대 중식 접대
 卞昌彦=(사무실)051-747-9488~9.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부울림퍼타운 118동1003호. 051-731-4854
 化太珍=5월1일 별세
 曹圭陽=5월28일 아리랑호텔에서 차남 결혼

제 10 회

張炳泰=(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302 동신A 103동1104호. 051-703-1968
 姜正熙=(자택)부산 동래구 명장1동 삼성타운A 102동1805호. 051-525-3330
 方奉佑=이원회계법인(공인회계사)대표. 부산 동구 초량1동 1205-1 교원공제회관 908호. 051-468-4501
 尹富煥=(주)대아환경 대표. 부산 사상구 엄궁동 644-1. 051-310-8248

제 11 회

安康泰=2월27일 부친 별세
 姜範中=(자택이사)부산 서구 토성동2가 7 문화A 207호. 051-242-8267
 安鍾仁=(승진)3월1일자 반송중학교 교장
 金文燮=3월5일 목화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吳性奎=3월11일 별세
 李珍祥=3월26일 서라벌호텔에서 장녀 결혼
 鄭炳謨=4월8일 수영로교회에서 장남 결혼
 李聖光=4월17일 별세
 白武浩=4월23일 한성에식장에서 장남 결혼
 吳根鍾=(개업)롯데공인중개사. 부산 금정구 구서1동 775-5. 051-581-2100

제 12 회

金壽萬=세화상회 대표. 4월4일 별세
 金容鎬=반여중학교 교장. 4월22일 삼남 결혼
 金宰旭=(개업)한식집 당백전. 부산 대연동. 051-621-8186
 金春光=5월13일 장녀 결혼
 朴時三=4월16일 장남 결혼
 朴貞一=4월30일 장녀 결혼
 朴朝元=4월30일 차남 결혼
 安永圭=(개업)마산노인병원. 0551-242-7582
 嚴泰燮=동아대학교 교수. 3월28일 지역유희회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李承文=(개업)비어책. 구 대한극장 2층. 051-816-9707
 張東錫=부경대학교 교수. 5월9일 지역유희회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鄭鎮泰=용두기원 대표. 5월14일 차남 결혼

제 13 회

張米秋=3월 서울 창천감리교회에서 장녀 결혼
 趙健一=3월23일 모친 별세
 文東午=3월25일 목화예식장에서 차녀 결혼
 朴洪表=3월3일 모친 별세
 裴永奉=4월21일 부산호텔에서 장녀 결혼
 金信夫=(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온천2동 럭키A 8동803호. 051-553-6677
 文炯才=5월7일 부산호텔에서 장남 정기군 결혼
 金春吉=5월13일 남천성당에서 장남 기훈군 결혼
 金允洪=(자택이사)부산 금정구 장전2동 409-13. 051-512-1246
 申敏微=(개소)세계회계사무소. 부산 동구 범일2동 830-36 4층. 051-646-0141~2. FAX 051-645-0141

제 14 회

田富吉=전 병영우체국장. 4월16일 울산 옥동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052-261-6588
 金永植=신라병원 병원장. 4월29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장남 결혼. 051-895-0101~9
 金龍秀=5월14일 장남 결혼. 051-464-9751
 李永準=광복의료기상사 대표. 5월21일 대구 퀴빈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051-244-4748
 鄭三永=고려신경정신과의원 원장. 5월28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장남 결혼. 051-416-6220
 崔慶烈=(합)용마전설 회장. 051-257-1526~7
 金昌圭=전 (주)대우 부사장. 5월10일 별세. 051-741-5775

제 15 회

金光弘=4월30일 국제호텔 3층에서 삼녀 하정양 결혼
 鄭俊秀=5월14일 서울 소피텔 엠버서더호텔에서 차녀 현경양 결혼
 朴在浚=4월30일 모친 별세
 周倫卓=(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18 연산LGA 119동 702호. 051-755-1320

제 16 회

張相進=3월15일 한국건축가협회(KIA) 부산지회 지회장으로 피선
 林觀淳=3월11일 충남대병원에서 별

세

姜鍾國=2000년 동아마라톤대회 하프코스에서 2시간20분내로 주파
 金斗應=4월9일 서울 역삼동 성당에서 아들 결혼
 李孝一=4월15일 서울 공항터미널컨벤션센터에서 장남 결혼
 河朱烈=4월16일 서울 공항터미널컨벤션센터에서 장녀 결혼
 金漢善=4월17일 모친 별세
 尹世震=(개업)성애영피부 비만관리실. 부산 중구 부평동2가 70 2층. 051-254-3663
 宋泰男=4월29일 소피텔 엠베서더호텔에서 딸 결혼
 申政泰=4월28일 서울대학병원입원. 02-708-1299
 李相友=4월23일 오리엔탈공항호텔에서 장남 결혼
 李榮珪=4월30일 장녀 결혼
 玄勝夫=5월7일 장녀 결혼

제 18 회

金武源=해운대 보건소장. 051-743-0120
 金思權=부산중부경찰서장
 金鍾喆=동기회장. 김중철세무회계사무소 소장. 051-853-1601~3
 梁龍吉=부산시 상수도본부 총무부장. 051-888-5510
 李相敏=허시퍼시 대표. 4월30일 서라벌호텔에서 장남 결혼
 林道根=강서, 서, 사하구 18회 지역회장. (주)삼공사 전무. 051-205-7101~5
 崔康登=정공산업 대표. 051-261-2911~2
 張壽一=신성그래픽 대표. 5월12일 금강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徐富源=강서, 서, 사하구 18회 지역 동기 사무총장 파워원치 119 총판 및 한솔공인중개사 대표. 051-203-3736
 黃光健=(이전개업)지성소아과의원. 051-323-3505
 許泰烈=16대 북 강서를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 051-972-6836~7
 陳湘永=4월15일 아리랑관광호텔에서 장녀 혜영양 결혼
 韓靈璇=5월20일 서라벌호텔에서 차녀 지혜양 결혼
 金榮泰=5월21일 동래관광호텔에서 장남 송근 결혼
 金勇基=5월21일 목화예식장에서 장녀 여영양 결혼
 金泰均=5월7일 부친 별세
 尹奉秀=5월5일 부친 별세

제 20 회

申鉉石=5월28일 동래 청기와예식장

에서 딸 유진양 결혼. (자택이사) 부산 동래구 수안동 새동래A 다동 1003호. 051-554-6573
 林盛春=반산초등학교 교감. (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다대2동 삼환A 209동2204호. 051-266-2260
 白文燦=해운대이비인후과 원장. 5월27일 서울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딸 지영양 결혼. 051-746-8494
 白承萬=6월18일 오전 11시 부산 YMCA회관에서 딸 지선양 결혼. 051-204-1276
 金容民=5월13일 모친 별세. 051-747-8005

제 23 회

(동기회사무실 이전 안내)
 제23회동기회 사무실이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48 명성빌딩 503호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51-246-3323

제 25 회

李相熙=우리정보기술(주) 상무이사. 0551-284-4877. (자택)0551-285-3443
 趙良濟=한중경영혁신 팀장. 0551-278-3271. (자택)경남 마산시 양득동 정우맨션 1107호. 0551-292-6261
 崔信哲=녹십자병원장. 0551-244-1526. (자택)0551-244-4826
 韓俊錫=창원농협공판장 66호. 017-587-5373. (자택)0551-289-4951
 尹宗有=외환은행 남양동 지점장. 0551-263-5582. (자택)051-243-0541
 崔誌國=경남도청 문화관광국장. 0551-262-9506
 金秀國=상농기업(주) 이사. 0525-345-0502. (자택)051-556-4498
 李爽熙=한나라당 부산지부 사무처장. 051-625-6601
 金鍾滿=현대자동차 부산상업영업소장. 051-314-3040. 011-848-8865. (자택)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삼진민정A 203호. 0525-323-8862
 金旭泰=한안합동도정공장 대표. 0552-282-1234
 金容慶=잠수기수협 마산지사 부장. 0551-245-7092. (자택)0551-245-9215
 朴炳喆=일동미보약국 대표. 0551-287-3442. (자택)0551-281-3367
 朴鍾根=경남대 기계설계학과. 0551-249-2621. (자택)0551-299-2182

(7면에 계속)

제28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 문

김만중 섬진공업(주)대표이사
 김용원 아세아태평양양법률사무소
 서영대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엄호성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하갑지구당
 최갑호 피자렛부산경남프랜차이즈(주)대표이사

회 장

우건식 (주)우리RCM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조광제 대선약국 약국장

부 회 장

강용수 중앙치과의원 원장
 강현안 부산동부지원 민사합의2부 부장판사

김명준 춘해병원 내과 진료부장
 김부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양동욱 부산중앙고 교사
 탁중배 미광동문 이사

감 사

배정환 부산은행 사동출장소장

총 무

김동수, 민주식

재경동기회 회장

김영학 ziah.com 대표

재경동기회 총무

최석근 (주)VTC Korea 대표이사

<지역 및 직능동기회>

마산·창원동기회장
 정영주 정영주안과의원 원장
 울산동기회장
 최성덕 현대중공업 철도차량부 부장
 거제동기회장
 박종기 대우조선공업(주) 홍보실장
 산우회장
 이원철 법무법인 국제 대표변호사
 골우회장
 박영규 (주)코마 대표이사
 기우회장
 최태열 동남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테니스회장
 조광제 대선약국 약국장

<6면에서 계속>

제 26 회

徐耕浩=(개업)하이마트에서 출고하는 AIR-CON DELIVERY & 설치. 051-503-1851
 朴斗植=(개업)세호통상. 부산 사상구 감전2동 152-2 유통상가 6동 308호. 051-327-4651
 鄭昇圭=(개업)21MMS.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662-6 창원빌딩 108호. 051-818-8821
 李東壽=울산지역 동기회 총무. 울산 대학교 수학과 교수. 052-259-2313.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동부A 110동803호. 051-916-0996
 張永建=서울로 이사. 거처를 아시는 분은 연락(박복수 총무 051-758-5366)바랍니다
 朴君碩=신성기술. 051-207-5331
 朴相浩=(상호변경)(주)롯데개발.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90 범화빌딩 301호. 051-581-6255
 崔炳武=동아대의료원 정신과. 4월1일부터 정교수로 승진
 李圭龍=4월22일 부친 별세
 金成瑄=(자택)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A 122동1202호. 0523-362-0677
 鄭巨敦=영일약국. 051-302-4372
 成在業=5월7일 부친 별세

제 27 회

李大鵬=회보 316호 7면 金大鵬으로 오기. K.S.VAN. 대표. 051-557-6668. (자택)부산 북구 만덕3동 한신그린코아 105동1107호. 051-343-1555
 李逢春=회보 316호 7면 李逢春으로 오기. 남산내과신경병원 병원장. 051-582-9461. (자택)부산 금정구 구서2동 부영 벽산A 101동801호. 051-518-5553
 申海鎮=회보 316호 7면 申敏鎮으로 오기. 대우해운(주) 대표이사. 051-462-4066. (자택)부산 연제구 거제2동 917 대우A 101동1902호. 051-506-0797
 姜渭正=현대자동차 인천출고사무소장. 032-888-7341. (자택)경기 고양 일산구 후곡마을 럭키A 907동2103호. 0344-914-6942
 高大植=부산은행기찰지점 지점장. 051-581-0854(근무지 이동)
 韓尙勳=재경동기회장. 대진불이건축 사무소 소장. 02-733-2334. (자택)서울 서초구 반포4동 81-7 (11/3). 02-535-8359
 韓長浩=(자택)부산 부산진구 네오스포 A1901호. 051-817-5543
 高文成=신대양쇼핑(주) 대표이사.

02-778-4656. (자택)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A 2동 901호. 02-576-6780
 柳龍昊=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안전해석실장. 042-868-0228. (자택)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빛A 133동 1001호. 042-867-1039
 朴大弘=(주)초록 T.TECH 부사장. 051-756-5241.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LGA 101동 501호. 051-701-3313
 孫貞植=라성약국 대표약사. 0345-482-9922. (자택)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38 월드메르디앙 104호. 0342-706-3551
 李成得=부산방송국(PSB) 야구해설위원. 051-850-9400. (자택)부산 동래구 사직2동 46-13 (13/2). 051-503-4474
 孔冀烈=동서대학교 국제관광학 교수. 051-320-1640. (자택)부산 금정구 구서2동 우성A 8동 1201호. 051-582-3475
 辛凡允=현대정유(주) 안동지사장. 0571-853-3593. (자택)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신라A 411호. 0343-472-4352
 金鍾道=대우자동차 홍보실 이사. 02-778-6171. (자택)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인왕산 현대A 103동204호. 02-6748-9316
 金亨俊=태양상재 대표. 02-382-0412. (자택)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강촌코오롱A 706동 602호. 0344-907-2594
 李成春=범양상선(주) 포항지점 화물감독팀 선장. 0562-272-7341. (자택)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우방타운 118동409호. 0562-241-2105
 全應曠=POS DATA(주) 서울운영팀장. 02-3457-3602. (자택)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선경A 405동504호. 0342-711-8661
 鄭斗植=가림산업(주) 대표이사. 032-819-0012. (자택)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B동 2202호. 02-415-4550
 曹曠煥=(주)동회산업 기획실 이사. 052-259-0736. (자택)경기 과천시 별양동 52 주공A 606동 206호. 02-507-2818
 崔碩珍=노바티스(주) 인사담당 이사. 02-768-9010. (자택)인천 부평구 부계3동 상우보림A 103동1702호. 032-361-9659
 庾 峰=한국원자력연구소 신행로 기계구조실장. 042-868-2988. (자택)대전 유성구 송강동 한마을 A 109동1001호. 042-935-5045
 崔龍一=동양증권 남서울지점 부장.

어디서 무엇을

02-3481-8412. (자택)서울 노원구 공릉2동 현대A 1동105호. 02-948-7333
 朴贊龍=부산문화방송국 광고사업국 팀장. 051-760-1094.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화목타운 106동602호. 051-703-4565
 金洪兆=동해해운(주) 영업부 부장. 02-730-2212. (자택)서울 광진구 중계1동 신안A 102동1404호. 02-935-6250
 金柄旭=새한공인중개사 대표. 051-805-9566. (자택)부산 영도구 동삼3동 주공2단지 208동202호. 051-403-0782
 文基永=인천제철(주) 강남영업소 형강팀 부장. 02-3472-9981. (자택)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삼익A 1832동1204호. 032-322-8091
 朴正容=한국중공업 원자로 설계실 부장. 0551-278-5670. (자택)경남 창원시 남산동 한양A 3동517호. 0551-275-8156
 李明燦=한국원자력 환경기술원. 4월12일 별세.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빛A 119동905호. 042-861-7581
 李吉學=승혜정공(주) 대표이사. 0331-223-2101. (자택)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신성A 403동2103호. 0342-717-6882
 金孝燮=삼성전자(주) 정보가전부문 부장. 0331-200-1320. (자택)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A 26동 1108호. 02-3452-1766
 千雨泰=부산해사고등학교 물리교사. 051-415-0436. (자택)부산 영도구 동삼1동 국제마마A 106동 801호. 051-404-4803
 田昌熙=경일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교수. 053-850-7263. (자택)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남타운 8동 306호. 053-756-4315
 孔民培=경남창원시청 시장. 0551-280-2201. (관사)경남 창원시 상남동 대동A 118동203호. 0551-282-4100
 鄭宰昊=4월20일자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사관. 02-3273-2126. (자택)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꿈마을 삼환A 1005동 1003호. 032-667-5668
 韓鍾王=경남약품(주) 감사. 0551-251-2765. (자택)경북 경주시 충효동 대우1차A 103동1402호. 0561-771-6479
 朴尙勳=하나산부인과의원장. 051-782-0808.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한신A 105동301호. 051-746-5096

金成祐=정성축산 대표. 0525-321-3216. 011-862-4673. 정부지정 한우전매판매점 개업. (자택)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3. 0525-345-4673
 孫永奎=세승건설(주) 대표이사. 051-257-1939. (자택)부산 사상구 학장동 벽산A 106동1602호. 051-322-0503
 金大龍=호수식당 대표. 051-263-6781. (자택)부산 사하구 장림2동 599-4 (11/7). 051-265-0948
 趙佑暎=남부주영교회 담임목사. 051-758-7344. (사택)부산 수영구 광안4동 537-3 (2/3). 051-758-5018
 金正坤=성도무역 대표. 02-2295-0961. (자택)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3차A 24동1003호. 02-593-8213
 金英秀=GNB 대표. 02-722-0802. (자택)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금호A 918동703호. 032-324-6406
 玉忠錫=(주)동회산업 기술연구소 상무이사. 052-259-0735. (자택)부산 금정구 구서2동 우성A 14동906호. 051-583-9676
 李興載=대한인태셔날페인트(주) 상무이사. 432-2100 (자택)경기 안산시 성포동 선경A 4동1104호. 413-0988
 黃三鎭=(자택)서울 노원구 상계3동 동아블람A 102동303호. 02-938-2455
 趙鏞秀=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자택)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유진대림A 1806호. 051-253-2595

제 31 회

金鍾霖=성림철재 대표. 051-264-9780. 011-880-0666. (자택)부산 사하구 다대동 현대A 108동 1706호. 051-262-4930
 崔海永=사하1급정비공장 공장장. 051-262-5511. 016-552-9927. (자택)부산 사상구 엄궁동 대림A 102동205호. 051-324-2502
 孫延水=(개업)희집 해사탕. 051-202-3726. 011-577-3727. (자택)부산 사상구 엄궁동 대림A 104동2306호. 051-327-0634.
 裴寅煥=부영상사 대표. 051-328-0183. (자택)부산 금정구 장전동 581 경보A 2417호. 051-514-2338
 全增旭=장전중학교 과학교사. 051-513-4373. (자택)부산 금정구 구서1동 금강A 102동2309호. 051-582-1054

조성재=미라클 인터내셔널 부산경남지사장. 051-807-8501. 011-9531-1140
 裴政鎬=L.T.F.검사관. 011-832-4628
 具滋允=한국해양수산 연수원 항해학 과장. 051-620-5802. (자택)부산 연제구 연산9동 망미주공A 123동1306호. 051-755-0454
 金孝淵=(주)테크 인터내셔널 이사. 051-464-8986. 011-9502-7019
 李炳泰=의원은행 부산본부 차장. 051-463-1681. 011-9554-2068. (자택)부산 영도구 연선2동 102-3. 051-416-2068
 李容植=신아의원 원장. 051-418-7175~6. (자택)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제마마A 103동1005호. 051-405-5950
 孔光旭=(자택)부산 강서구 명지동 2272 (18/1). 051-271-0331. 017-554-5622
 金永洙=(주)동조해운 상무. 051-468-5821, 5801. (자택)부산 사하구 당리동 355 (11/1) 수양A 511호. 051-204-6413
 朴正浩=평창종합건설 건축부장. 011-724-1063. (자택)울산 중구 북산동 597-1 평창A 101동1502호. 052-243-1066
 蔡慶洙=(승진)수원세무서장. 0331-250-4201. (자택)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현대A 101동1304호. 02-461-9400
 金大弼=(개업)정통일식집 동경 구락부. 02-3663-8663. 016-619-2262. (자택)서울 노원구 하계1동 선경A 6동303호. 02-948-2262

제 33 회

權峰秀=벽산VDF 이사. 051-610-1993. (자택)부산 수영구 광안1동 광원A 104동806호. 011-9508-9370
 權昌柱=(주)진영 과장. 02-594-6100. (자택)서울 노원구 공릉2동 111 화랑타운A 710동1001호. 011-568-7440
 金 一=해성과학사 대표. 051-245-9560. 부산 중구 1가 30. 017-551-9560
 金春福=거성중고매매상사 대표. 051-328-8233. 011-594-9766
 金洪均=김해 동원캐센터 대표. 0525-321-1739
 朴來杜=전주지방병원 계장. 0652-259-5527. (자택)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414 롯데A 6동606호. 018-583-0483
 裴晨洙=신신교육본부장. 02-3446-1331. 016-553-9681
 李海承=해군사관학교 중령. 0553-549-5123. 017-676-5512

제33회동기회 임원 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박명진

동기회고문
 김영호
 김정욱
 김진용
 윤성국
 옥종훈
 최정현

회 장
 김법영

수석부회장
 송종현

부회장
 배종현
 이광호
 이순환

감 사
 박영배
 신영재

이 사
 고창성
 권봉수
 김동환
 김시홍
 김재룡
 김진일

김태균
 김호생
 김호인
 남경태
 마승훈
 민병현
 박중철
 박상국
 박태우
 박태중
 서길원

윤상현
 이기석
 이엽호
 이윤조
 이호인
 장성욱
 정재휘
 주기훈
 주영민
 진태호

천탁기
 최웅남
 하현보
 허 욱
 홍주성
 황규태

총 무
 김재선

추억캐기 '홈커밍' 축제 만발

제4회 졸업 50주년

사상 처음 '수학여행'으로 동화사~해인사 등 관광 합동 古稀宴 노래자랑도

졸업 50주년을 맞은 제4회 동동기회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축제사상 최초로 모교가 아닌 명승지에서 '수학여행'으로 펼쳐 화제를 모았다.

철수를 맞은 제4회 동동 45명은 5월3일부터 4일까지 이들 동안 대구 동화사~경남 합천 해인사 코스에서 합동고회연(古稀宴)을 겸한 '수학여행'으로 홈커밍데이를 기념했다.

황갑생(부산) 문택상(서울)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번 행사는 부산 30명·서울 13명·대구 2명(정순모·황현규)이 3일 오후 12시40분 '동대구역 상봉'으로 막이 올랐다.

일행은 이날 대구 동문이 배운 뷔페오찬에 이어 동화사를 관광하고 오후 6시 경남 합천 해인사 절골로 옮겨 '고바우식당'에서 산채정식의 전야제를 즐겼다.

황갑생·문택상 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칠십평생 건강을 잘 지키자"고 말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밤8시에 막이 오른 노래자랑. 두 회장과 김용복 동문이 심사를 맡은 노래자랑에서 최고인기상은 조성일(서울), 우수상은 김병록(서울), 장려상은 김성희 동문이 받았다.

일행은 둘째날인 4일 오전9시 해인사에 들러 2시간에 걸쳐 대웅전과 팔만대장경을 비롯, 주변 암자들을 관광한 후 오후1시 다시 대구로 돌아왔다.

대구동문의 두번째 오찬대접을 받았고, 동대구역에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제4회는 이번 행사 기념으로 박홍기동문이 붓글씨로 "龍馬遊天"과 동문 개개인의 이름(한자)을 새겨 넣은 백자 꽃병을 마련했다.

신록의 계절 5월의 모교 교정이 홈커밍데이 축제로 싱그럽게 채색됐다.

제4회동기회는 졸업50주년, 제14회는 40주년, 제24회는 30주년, 제34회는 20주년을 각각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을 이끌고 축제를 만끽했다.



제4회동기회 동문들이 졸업 50주년 기념 수학여행 중 가이산 해인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5월13일 호텔롯데부산에서 여흥을 즐기고 있는 제14회동기회 동문가족들.



4월29일 모교 국산기념관에서 열린 제24회동기회 졸업30주년 1부 기념식.



제34회동기회 동문들이 은사들과 함께 원형교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4회 졸업 40주년

재미 이수덕 1백만원 쾌척 뽀빠이 이상용 특별사회 골프 등 클럽별 기념잔치

제14회동기회는 5월13일 오후 2시30분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졸업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 1부 기념식을 거행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이수덕동문이 2부 '열린무대'에서 동기회발전기금 1백만원을 쾌척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추월영 당시 교장선생님 등 초청은사 11명, 노수덕(부산)·신준호(재경)회장을 비롯한 동문·가족 200여명(미국 3·일본 1명), 내빈 1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수덕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고 이 뜻깊은 만남을 마음껏 즐기자"며 "모두들 마음을 열어 영원한 용마의 우의를 다지자"고 말했다.

정상진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1부 기념식은 장학금(경남중) 및 교사연구지원금(경남고) 전달, 사은품 증정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고기념사업으로 우승기·우승컵 전달이 기증됐고 고 김용복동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저녁 호텔롯데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부 '열린무대'는 뽀빠이 이상용의 사회로 진행됐다. 특히 강주신동문(동기회 교문)의 사물놀이, 김병철 동문·정상진 부인과 노수덕·신준호 회장 등의 듀엣, 부인들의 노래자랑 등이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한편 홈커밍데이 기념으로 각 클럽에서 행사를 벌였다.

△'1·4회(골프)'는 5월12일 통도사 C.C에서 40명(부부 포함)이 라운딩을 즐긴 후 저녁에 여흥. △'등산회'는 30여명이(부인 9명 포함) 5월 14일 물운대 산책, 대대동 '산호정' 생선회 파티. △'낙석회(바둑)'는 5월14일 부산 남구 대연동 '대감집'에서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천선 바둑대회. 우승 김경수·준우승 박준제동문. △'경조회(낚시)'는 4월23일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근교 반성 담가리연못에서 부부등반 낚시대회.

제24회 졸업 30주년

알찬 각종 모교기념사업 테즈락호 선상파티에 감동 해운대서 '열린무대' 연출

제24회동기회 졸업30주년 홈커밍데이행사가 4월 29일 오후 2시30분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초청은사 20명을 비롯해 동문·가족 350여명(부인 90명), 내빈 10여명 등 모두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정대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첫 모교방문행사인 졸업20주년 기념행사가 잊그게 같은데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며 "부단한 노력으로 각자 내일을 위해 건강하자"고 말했다.

서정대(부산)·정영덕(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날 행사 1부 기념식에서 서회장은 모교기념사업 기증서(경남고 백네트 설치비 등 500만원·경남중 용원용 방송 시설비 200만원)를, 정회장은 모교교사연구비(경남고 200만원·경남중 100만원)를 각각 전달했다.

송순철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 행사준비위원장인 김인철(부산) 변중석(서울), 총무인 정기훈(부산) 이종구(서울), 후원회장인 김명배, 공성철(예회환 대표) 변용준동문(한성전자 대표)에게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2부 '선상파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부산항 유람선인 테즈락호에서 열렸다. 카테일 파티와 만찬 속에 진행된 2부 행사는 실내경음악단의 경쾌한 연주와 초청가수 및 동문·가족 대표가수 등이 열연을 했다.

'화합 한마당'인 3부 행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연회실에서 열렸다. 김정모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3부는 △학창시절 비디오 방영 △다솜합창단 등 축하 공연 △초대가수 열창 △팀별 장기자랑 △은가죽 열린무대 등으로 연출됐다.

제34회 졸업 20주년

대망의 첫 행사에 450여명 사물놀이패·통기타 가수 출연 신바람에 무대서 낙상하기도

졸업 후 첫 홈커밍데이 축제를 맞은 제34회동기회는 5월6일 오후 3시30분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졸업 20주년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황병주(부산)·박창삼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우명수 본부교문 등 은사 17명과 동문·가족 430여명, 내빈 10여명 등 모두 450여명이 참석해 올해 홈커밍축제 중 최다참석률을 기록했다.

황병주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가 우리 34회 용마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매김하자"며 "사회를 공고히 하는 주춧돌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아"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대성황을 이루게 된 것은 서영화(부산)·박창수(서울) 두 준비위원장의 노고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정현욱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모교기념사업증서와 동창회 장학금 등 전달이 있었다. 또 서영화·조남훈 동문에게 본부회장 공로패, 이재완·김한조동문에게 본부 기념배지(순금), 박창삼·류송우동문에게 모교교장 감사패가 수여됐다.

2부 '한가족 축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층무홀에서 열렸다.

사물놀이패 통기타가수 댄스그룹 실내악단 등 공연, 동문·가족의 노래 및 장기자랑으로 엮여졌다.

'디스코'를 열연하다 무대에서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출연, 기쁨을 토한 '뚝심아줌마'에게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한편 재경동문·가족을 위한 송도바다가 뒤풀이가 새벽까지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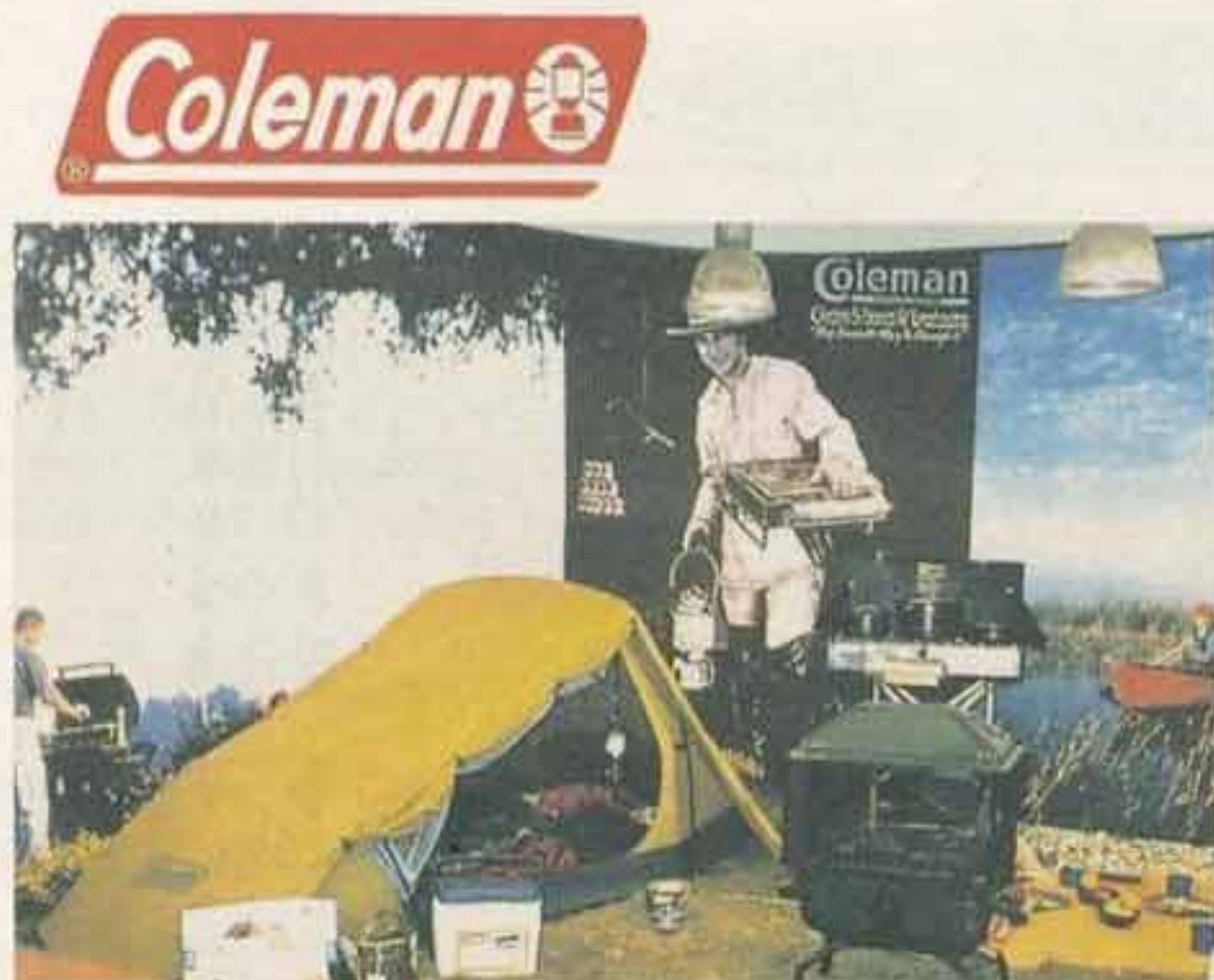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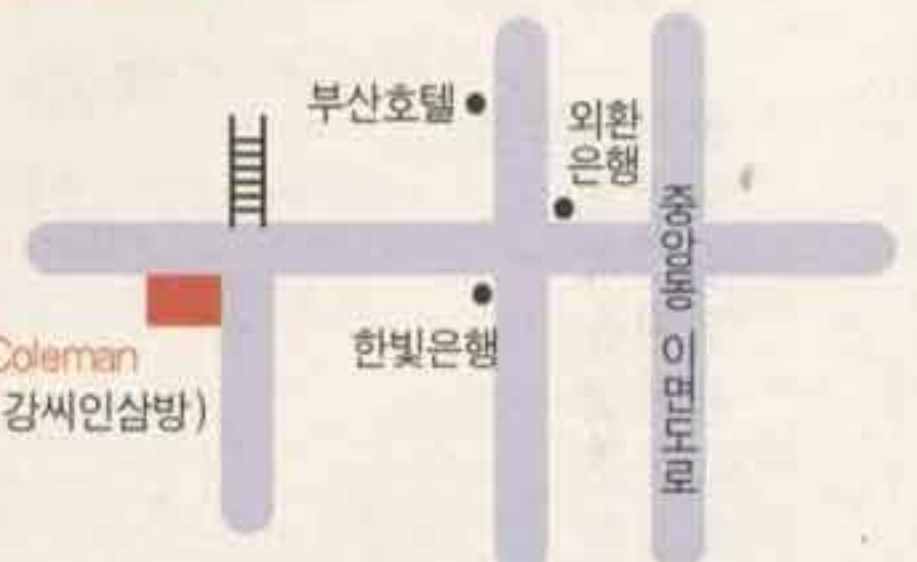
이들은 싱싱한 생선회에 매료됐고 밤바다의 낭만에 흠뻑 젖었다.

등산 레저용품 전문점

자연이 나를 부를때... 그 곳에는 Coleman

남진현(제19회)
강국상(제19회)
지용섭(제26회)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5-2
TEL : 051)248-2222
FAX : 051)248-2294



Coleman은 (주)신양 대표 김영복(제19회)동문이 독점수입하는 세계 굴지의 전문 등산 캠핑용품 브랜드입니다. (서울매장 압구정동 02-541-0062)